

2010. 6. 2.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0년 6월 3일(목)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대외협력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 사회적 기업가정신 국제컨퍼런스 2010

- 일 시: 2010년 6월 3일(목)~4일(금) 09:00~18:00
- 장 소: 6월 3일(목) KDI 대회의실  
6월 4일(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 주 최: KDI, 고려대학교
- 후 원: 노동부, 쏘시얼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  
사회적기업활성화포럼

-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공동체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소외계층을 감싸고 공동체성을 제고하려는 인식의 틀.
  - 금융위기의 극복과, 위기 극복 이후의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도입 및 확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옴.
  - 또한 G20의장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평화롭고 품격 있는 사회를 일구어 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은 물론, 이의 도입과 확대는 고질적인 왕따 현상과 최근 한국 사회를 경악케 한 중학교 졸업식 나체 뒤풀이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다양한 학원 폭력의 완화 등 미시적 삶의 영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KDI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 국제컨퍼런스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repreneurship 2010)을 개최함.

- 금번 컨퍼런스는 노동부, 쏘시얼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 및 사회적 기업활성화포럼의 후원 하에 6월 3, 4일 양일간 KDI와 고려대학교에서 분리 개최됨.
  - 6월 3일(목) KDI에서 열릴 첫 날 컨퍼런스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지원방안’과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금융지원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며,
  - 6월 4일(금) 고려대학교에서 열릴 둘째 날 컨퍼런스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궁극적 목표가 모두를 사회혁신가(changemaker)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청소년 사회혁신가 양성방안’과 이에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인 ‘정감(empathy)’의 교육 방안, 아울러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 보게 될 것임.
- 컨퍼런스에는 아쇼카(Ashoka)의 빌 드레이튼 대표, 스콜센터의 파멜라 하티간 소장, 정감의 뿌리(Roots of Empathy)의 메리 고든 대표 등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가 양성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내실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빌 드레이튼 대표는 아쇼카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해낸 바 있음.
  - 파멜라 하티간이 소장을 맡고 있는 옥스퍼드대 스콜센터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지성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을 이끌어가고 있음.
  - 메리 고든 대표는 아이들에게 정감(empathy)을 교육하는 정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 관한 메리 고든의 저서는 번역되어 국내 출판되었음 (번역서: 공감의 뿌리).
- KDI는 컨퍼런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가 양성 및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위한 심층 연구를 수행해나갈 것임.

- 5월 초 사전등록 개시 일주일 만에 회의장 수용 가능 인원을 훨씬 넘는 400명 이상의 참가 신청이 쇄도한 현상은 사회적 기업정신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요를 방증
  - 이에 KDI는 홈페이지([www.kdi.re.kr](http://www.kdi.re.kr))를 통해 컨퍼런스 전체를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

◇ 2007년 KDI는 소외계층을 끌어안아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동체자본주의를 제안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이를 실현해낼 수 있음을 밝힘.

- 2007년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에 대한 심포지움」, 2008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으며,
- 2009년에는 컬럼비아경영대학과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 국제컨퍼런스 2009」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필요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낸 바 있음.

※ 문의: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958-4042

## [프로그램]

### 2010. 6. 3(목) KDI 대회의실

10:00 ~ 10:30 **등록 및 네트워킹**

10:30 ~ 10:35 **개회:**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10:35 ~ 10:45 **환영사:** 현오석 KDI 원장

10:45 ~ 11:45 **기조연설:** 빌 드레이튼 아쇼카 창립자/CEO

12:00 ~ 13:30 **오찬**

오찬연설: 임태희 노동부 장관

13:45 ~ 15:45 **제1세션: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지원방안**

사회: 운영섭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부설 지속발전연구소 소장

발표: 파멜라 하티간 스콜센터 소장

솔로몬 자야 프라카쉬 마야 올가닉 CEO

패널토론: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CR&L총괄|GMS

운영각 삼성KPMG 회장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대표

김유숙 사회투자지원재단 팀장

16:00 ~ 17:50 **제2세션: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금융지원시스템**

사회: 강문수 KDI 명예연구위원

발표: 커윈 테스트 지역사회개발벤처캐피탈협회 회장

비슈누 스와미나단 아쇼카 Housing for All 이사

패널토론: 이철영 ARK투자자문 회장, SEN 집행대표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장지연 소풍(Sopoong) 시니어 파트너

### 2010. 6. 4(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09:00 ~ 09:30 **등록 및 네트워킹**

09:40 ~ 09:45 **개회:** 운영섭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부설 지속발전연구소 소장

09:45 ~ 09:55 **환영사:**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09:55 ~ 10:10 **기조연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10:20 ~ 12:05 **제3세션: 청소년 사회혁신가 양성방안**

사회: 이진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발표: 에이메릭 마모라 국경없는 기업가 창립자

마르셀로 베르 아쇼카 청년벤처 스페셜 프로젝트매니저

패널토론: 김종휘 하자센터 부센터장  
심재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민동권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염지홍 패션디자인(Passion Design) 열정디자이너

12:15 ~ 13:45

**오찬**

인사말씀: 손병두 사회적기업활성화포럼 공동대표, KBS 이사장  
오찬연설: 메리 고든 정감의 뿌리 창립자/회장

14:00 ~ 15:20

**제4세션: 정감교육(Empathy Education)의 도입방안**

사회: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발표: 메리 고든 정감의 뿌리 창립자/회장  
패널토론: 김수지 전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김희옥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하자작업장학교 담임  
김정희 어린이집 원장 모임 아플커뮤니티 대표

15:25 ~ 16:35

**제5세션: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사회: 박현준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센터 소장  
발표: 이은애 (사)Seed:S 혁신사업단장  
패널토론: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진규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육성과장  
문정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6:50 ~ 17:50

**제6세션: 종합토론**

사회: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 빌 드레이튼 아쇼카 창립자/CEO  
메리 고든 정감의 뿌리 창립자/회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윤영섭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부설 지속발전연구소 소장  
조영복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이사장,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7:50 ~ 18:00

**폐회사**

## 기조연설

빌 드레이튼 '아쇼카(Ashoka)' 창립자/CEO

-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힘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위대한 기업가의 손에 있는 아이디어보다 위대한 힘은 없으며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발전은 한국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
  - 사회적 기업가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나이팅게일, 마리아 몬테소리, 윌리엄 월버포스, 헤이즐 아베드, 지미 웨일즈와 2700명의 아쇼카 펠로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 사회적 기업가는 자신의 비전으로 사회전체를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설 수 없는 존재
  - 아쇼카는 후보자를 심사할 때 후보의 과거이력을 어려서부터 세밀히 조사하고, 후보자가 한 대륙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목표를 지녔는지 살핌.
- 사회적 기업가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난관은 어떻게 극복할지 등에 관심이 많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매우 현실적임.
  - 어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원인 파악에 주력하며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상황 자체를 바꾸거나 본인의 생각을 변화하도록 노력함.
- 사회적 기업가의 정감(Empathy)은 전염성이 높아 이를 따라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수 많은 체인지메이커를 낳음.

- 사회적 기업가의 아이디어에 공감하여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지역의 체인지 메이커가 되고 그들은 또 다시 직장 동료, 가족, 이웃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체인지메이커를 탄생시킴. 이것이 바로 '모두가 체인지메이커가 되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임.
- 아쇼카는 영향력 있는 사회적 기업가의 아이디어 실행을 지역, 분야와 상관 없이 돕고 있음.

□ 한 분야에 수 백명의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있다면, 그 분야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됨

- 아쇼카는 지난 12년 동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선구적인 사회적 기업가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방법론을 익힘
  - 아쇼카 커뮤니티는 세상의 방향성을 알고 이를 위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함.
  - 세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30~50%의 사회적 기업가 펠로우들이 주요 7~10개국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협력

□ 500명의 아쇼카 펠로우들은 세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함에 따라 정태적 세계에서 통했던 성공적인 성장방법으로 세상의 지식과 규칙을 배우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함.

- 새로운 세계에서는 청소년은 체인지메이킹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야함.
- 체인지메이커로서 중요한 자질은 정감, 팀워크, 리더십임.
- 팀워크와 리더십은 정감에서 파생되는 기술이므로 정감이 가장 중요한 자질임.
  - 모든 어린이들은 정감을 습득하고 실천해야함
  -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장래에 자신들이 세상을 바꾸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하여야 함

□ 한국이 향후 급변하는 세계에서 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체인지메이커의 비율을 높이는 것임

○ 어린이들에게 공감능력을 키우는 것

○ 어릴 때 공감능력을 훈련받지 않은 성인들을 체인지메이커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움

## 제1세션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지원방안

###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고찰: '사회적' 이라는 것이 낳는 오해

파멜라 하티간 '스콜센터' 소장

- 상업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의 핵심을 가치점유(value appropriation), 혹은 사회적 가치 창조(social value creation)에 두느냐에 따라 구별됨.
  - 모든 기업가들은 상업적, 사회적 가치를 두루 추구하며 새로운 상품, 서비스 등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불만족과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집중함.
    - Google(상업적가치지향)과 Wikipedia(사회적가치지향)의 예에서 보듯, 혁신적 기업가들 중에는 가치 지향이 상이함에도 전 세계인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존재함.
  -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들은 주로 시장,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 관심을 두며, 실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사회, 경제, 환경적인 도전들을 다룸.
- 사회적 기업가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꾀한다는 핵심 가치의 추구를 제외하면 상업적 기업가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음에도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몇 가지 신화(Myth)가 존재함.
  - 첫째, 사회적 기업가들은 '고독한 레인저(ranger)'라는 오해가 있으나, 사회적 기업가들도 여타 기업가들과 같은 리더십(영감, 비전, 대인관계 기술 등)을 가짐.
  - 둘째, 사회적 기업의 규모(Scale)와 영향력에 대한 것으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 규모는 중요한 요소이나, 최근 사회 혁신을 강화하고 파급시키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왔음.

- 셋째, 모든 사람이 사회혁신가(change-maker)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모두가 사회혁신가 또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혁신가와 비사회혁신가의 상호적 관계가 중요함.
- 넷째, 사회적 기업가들이 자선단체나 NGO, 또는 정부가 하청을 준 서비스 제공자라는 오해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가들과 일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공공 부문의 혁신가들이라는 올바른 인식하에 사회적 기업가들이 실험,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다섯째, 모든 사회적 기업가들은 빈곤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일한다는 오해가 존재하나 실상 사회적 기업가들은 빈곤 및 소외 계층 뿐 아니라 정부, 민간 부문이 외면한 교육, 보건, 환경, 기술 등 사회에 유익한 상품들의 공급과 소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여섯째, 모든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모든 벤처 기업들이 영리 목적 하에 설립되는 반면 실제 사회적 벤처 기업들은 투자자 및 후원자(또는 기부자) 등에 기반을 둔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 하에 설립됨.

□ 오늘날 사회적 기업가들은 주류 기업들이 잠재적 수익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외면한 시장 주변부의 기회를 활용하여 시장(Market)과 가치(Values)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일궈낸 선구자들임.

□ 우리의 책임은 지난 20여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 모델에 기초하여 21세기 비즈니스를 재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높은 도덕성과 긍정적인 철학을 가진 혁신적 기업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혁신가들로부터 영감을 끌어내는 것임.

## 제2세션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금융지원시스템

### 지역사회개발 벤처캐피탈 펀드: 저소득 커뮤니티의 일자리와 기업가적 역량 및 부를 창출하기 위한 자기자본 조달(Equity Financing)

커윈 테스델 '지역사회개발벤처캐피탈협회' 회장

- 미국과 세계 전역의 여러 국가에서 두 가지 목적(double bottom line)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벤처캐피탈 펀드가 개발되고 있음.
  -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사회에 일자리, 부, 기업가 역량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사회개발 벤처캐피탈(CDVC) 펀드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해 상당한 경제 발전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자기자본 조달을 제공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규 산업을 개관하고, 이를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고자 함.
  - 펀드의 사회적 임무 및 펀드의 시장, 관리, 구조를 포함한 CDVC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CDVCA(지역사회개발벤처캐피탈협회)가 수행한 기존 연구에 기반해 통계적인 개요를 제시함.
  - 또한 이 산업이 창출하는 금전적인 보상과 사회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CDVC 투자의 사례 연구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한국 CDVC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착수 가능한 정책 및 활동방향을 제안함.
- CDVC 펀드는 한국의 저소득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펀드의 형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챔피언(지역단체, 재단, 교육 또는 정부기관)이 필요함.
- 정부정책은 스마트한 보조금의 형태이어야 하며, 개별적인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를 가해서는 안 될 것.
  - 한 투자자의 영향력이 기금에 과도한 영향력을 갖지 않도록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를 보충하는 수준이 바람직
  - 보조금으로 관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소규모의 운용비 지원과 투자에 대한 세제유인의 제공이 필요.
  - 기금관리자가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장은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세계를 변화시킬 기업: 공급가능한 주택과 혼합가치사슬

### 비슈누 스와미나단 '아쇼카 Housing for All' 이사

- 혼합가치사슬(Hybrid Value Chains)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상업적 협력체임.
  - 세계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혼합가치사슬은 공장의 생산라인뿐 아니라 수 천, 수 백 만 소비자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임.
  - 혼합가치사슬 사업과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가치를 창조해낼 것이며,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을 통한 가치 있는 상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
  - 이러한 상품에 대한 소비는 자선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사업이 아니므로, 지속적이며 확정적인 이윤창출이 가능함.
  - 구조적인 변화는 산업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새로운 경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혼합가치사슬의 형성을 위해 가치사슬에 관한 개념 확립, 가격과 금융개혁의 중요성 인식, 혁신체계 및 현명한 파트너십이 필요함.
- 전 세계 인구의 약 1/6이 빈민가에 살고 있으며, 10억의 인구가 일반적인 주택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주택시장의 수요는 약 3,320억 달러의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며 하나의 기업이 이러한 수요를 감당키는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 콜롬비아의 ColCeramica라는 기업과 서아메리카의 Grupo Corona의 한 부분과 Taller de Vida의 세 곳의 연구,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계획인 "Su Casa Como Nueva"를 2006년 실행함.

- 프로그램은 5개월간 16,50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였고, 매달 두 배 이상의 판매를 기록함.
- 2008년 5개 도시의 15개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 2006년 180,000 달러에서 2007년 230만 달러, 2009년 8백만 달러의 판매를 기록.
- 이를 통해 25,000가구의 삶이 개선되었고, 260명의 여성이 매달 200달러의 소득을 얻게 되었음.

- “인간의 잠재력은 가장 풍부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줄리아 노비 힐데슬리의 말처럼,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도울 때 스스로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
- 사업가모델의 발전은 인간의 창조, 혁신의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세계화 및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 제3세션 청소년 사회혁신가 양성방안

**모든 사람이 사회혁신가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문화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

에이메릭 마모라 '국경없는 기업가' 창립자

- 청소년들은 내일의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결정자가 아닌 현재의 사회혁신가(changemaker)임.
  - 현재의 사회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습득한 참여적인 청소년들이 필요함.
- 청소년들이 기업가적 정신과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그들 각각이 처한 환경 내에서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청년들의 문화와 인생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국경없는 기업가'로부터의 경험과 그간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사회혁신가로 양성하기 위한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방안을 공유함.
  - 청소년들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
  - 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자세와 자신감을 고취시킬 것
  - 청소년들이 프로젝트에 착수했을 때, 이를 지원할 것
  - 변화의 주체인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기업가의 커뮤니티를 창조함으로써 강력한 정체감을 심어줄 것

##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을 통한 '모든 사람이 사회혁신가'인 세상의 형성

### 마르셀로 베르 'Ashoka 청년벤처 스페셜' 프로젝트매니저

- 사회적 기업가는 전통적으로 상업적 기업가가 중심이 되었던 사회적인 시스템에 비전, 혁신, 결단력, 장기적 책임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인 선구자임.
  - 사회적 기업가는 전 분야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함.
  - 교육, 의료 등 시스템상의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단력을 지닌 '사회혁신가(changemaker)'의 비중 확대가 중요함.
- 아쇼카(Ashoka)는 상당 비율의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가들이 어린나이에 사회혁신가의 힘을 경험했다는 점을 발견함.
  - 아쇼카는 청소년들이 팀워크,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창의력 등의 기업가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청년 사회적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대신 자신만의 비전을 형성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청년들이 그들의 자주성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다음단계에 도전해 최종목표를 찾거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또한, 이를 통해 양성된 많은 사회혁신가들은 주변의 학교나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갖게 됨.
- 청년들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적인 기업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회혁신가'인 세상을 만들도록 도울 것이며, 이는 앞으로 개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제4세션 정감교육(Empathy Education)의 도입방안

### 정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메리 고든 '정감의 뿌리' 창립자/회장

- 사회적 기업가의 중요한 자질로 간주되는 공감능력(empathy)은 정감교육(Empathy Education)을 통해 계발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정감 있고 배려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
- 메리 고든에 의해 1996년 캐나다에서 창설된 정감의 뿌리(Roots of Empathy, ROE)는 아이들의 공감능력 및 감성능력(emotional literacy) 향상을 통한 책임감을 갖고 서로 배려하는 시민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초등학교 교사였던 메리 고든은 수 년 간의 경험 끝에 약자 괴롭히기, 폭력, 따돌림 현상 등 학교에서 만연하는 모든 악덕은 공감능력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분석, 정감교육의 필요성과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 공감능력은 육아 과정의 가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점에 착안, 취학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실에서 부모와 갓난아기의 관계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는 ROE 프로그램을 창안함.
- ROE 교실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5~12세 사이의 연령의 아동들은 부모와 갓난아기가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모습과 아기의 감정상태를 관찰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식별하고 이해하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즉, 공감능력)을 배우게 됨.
  - 공감능력의 향상은 감성지능(Emotional Literacy)의 향상으로 이어짐.
    - 감성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상태를 식별하고, 인식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반응),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어휘로 표현함은 물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 다양한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ROE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비참가자 표본에 비해 감정과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며, 더 사교적이고 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음.

## 제5세션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과제

이은애 '사단법인 Seed:S' 혁신사업단장

- 사회적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정부, 정치계, 언론 등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 나타남.
  - 2009년 말 기준, 299개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비중 0.03%, GDP 대비 매출액 비중 0.01%로 미미한 수준
  - 정부의 고용전략 대책회의,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전, 언론보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육성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본 연구에서는 2007년 7월 기준 총 298개소, 평균 인증률 45.8%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역분포·사회목적성·경영성과·근로자·정부지원 등에 있어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여 소개함.
  - 수도권 편중현상의 완화, 장애인 공동작업장의 사회적기업 전환, 과반수 이상의 비영리법인 형태 등의 특징적 경향이 나타남.
  -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성차별적 요소 잔존, 정부지원 미비 등의 한계점이 동시에 드러남.
-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형 모델'이라 할 수 있으나,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 필요
  - '정부주도형 모델'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정부는 고용·복지·사회서비스의 수요 증대를, 시민사회계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생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짐.
- 2005년 노동부 주관 하의 '사회적기업 법률 제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운영,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로 정부의 인증과 지원이 시작되고 성과가 가시화됨.

□ 최근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및 교육,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 모색 중이며, 다음에 제시한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들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함.

-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으로, 전문 컨설팅 비용 제공
- 둘째, 시장에서 정착할 때 까지 한시적인 재정지원 실시
- 셋째, 관련 법, 조례, 규정의 정비 및 지원체계 구축
- 넷째, 자본조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 조성 지원
- 다섯째, 인력양성사업과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지원
- 여섯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 사회적기업이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정책의 역사적 실패를 교훈 삼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부의 비전과 추진원칙 제고, 지원체계 정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 추진
- 시민 지지기반 형성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시민자율 등록제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내발적 발전환경 조성